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정은 물가로 강씨를 물뿌리며 평화나가는 들수난의 처럼 월
 2. 사랑이라 햇빛은 아침에 일어나는 주신 생명적 보듬던 어
 희년을 향해 함께 가는 길 주의 약속 곧게 밟으며 일곱
 번씩 일곱번 넘어져 도약속을 곧게 밟으며
 아 넘어져 도약속을 곧게 밟으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Karen LaFerty

Seek ye first

예수전도단 악

1.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의
 2. 사랑이 없으면 상상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3.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하면 이-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항-렐-루 항렐 루야
 항렐 루야 항렐 루야 항렐 루야 항렐 루야

Copyright (C) 1972 CCM Music/Marshall Prize In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Translated by 예수전도단. Approved by Copyright Korea.

시편 12, 13편

<p>12편</p> <p>1 주여! 도와 주소서.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으며 ○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p> <p>2 입만 열면 남 속이는 말이요, 입술을 놀려 간사한 말을 하고 ○ 속다르고 곱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p> <p>3 주여! 간사한 모든 입술 막아 주시고 ○ 제 사랑하는 모든 혀를 끊어 주소서.</p> <p>4 저들은 말합니다. “혀는 우리의 자랑, ○ 제 혀로 말하는데 누가 막으랴?”</p> <p>5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없는 자 짓밟히고 가난한 자 신음하니, ○ 나 당장 일어서리라 그들이 갈망하는 구원을 베풀리라.”</p> <p>6 주님의 말씀이야 진실된 말씀, ○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녹여 거른 순은과 같습니다.</p> <p>7 주여! 우리를 지켜 주소서. ○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소서.</p> <p>8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13편</p> <p>1 주여! 언제까지 나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p> <p>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p> <p>3 주, 나의 하느님,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 ○ 죽음의 잠,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p> <p>4 원수들이 이겼다고 뽐을 내며, ○ 적들은 기뻐하며 날뽐 것입니다.</p> <p>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 이 몸 건져 주실 줄 믿고 기뻐합니다.</p> <p>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 주님께 찬미드리리이다.</p> <p>●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	--

복음서: 마태오(마태)복음 6:24-34

<p>"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 순간인들 늘일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 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p>	<p>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 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p> <p>○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

본기도: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님의 평화로운 손길로 다스리시나이다. 비오니,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